멋대로 불태우는 쓰레기…청정 제주 위협

도 소방안전본부, 작년 불법 소각 300여 건 적발
영농부산물 등 태우다 '들통'…미세먼지·화재 우려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제멋대로 생활쓰레기와 영농부산물 등을 소각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3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소각 행위 단속 적발 건수는 306건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서도 지난 9월까지 160여 건이 적발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려면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서면(팩스 포함), 구두(전화 포함),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물이나 야외 등지에서 영농폐기물을 신고없이 태울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도내에서 휴지 등 생활쓰레기나 농작물을 수확하고 남은 잔재물 혹은 농업 관련 비닐 포장재 등 영농부산물을 임의로 불태우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소각 행위의 경우 오인 신고로 인한 소방차 출동으로 소방력 낭비를 부른다. 또 미세먼지 유발은 물론 화재 위험도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화재통계를 살펴보면 제주에서 발생한 화재 1961건 중 불법 소각으로 인한 부주의 화재가 274건으로 3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불법 소각 부주의 화재건수 비중(14.7%)과 비교해 갑절 이상 높은 수치이다.

지난달 18일 제주시 애월읍의 한 주택 공사장에서 건축폐자재 등을 소각하다 화재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6월 20일에도 제주시 애월읍의 한 양돈장에서 소각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 돼지 2100마리가 폐사하는 등 소방서 추산 9억7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나기도 했다.

이에 도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불법 소각 행위로 인한 화재피해 근절에 도민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소각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읍·면·동의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희 기자 staysf@jejupress.co.kr

'변호사 살인사건' 일반재판 진행

검찰·피고인 측, 국민참여재판 희망 철회

제주 대표 장기미제 사건인 '이모 변호사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일반재판을 받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5)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당초 국민참여재판(국참)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2차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앞서 1차 공판준비기일이었던 지난달 6일 A씨가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결정, 국참 가능 여부를 검토해왔다.

하지만 검찰과 피고인 측이 국참 희망 의견을 철회하면서 정식 재판절차가 시작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8월에서 9월 사이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해 11월 5일 새벽 3시15분에서 6시20분 사이 제주시 북초등학교 인근 거리에서 이모(사망 당시 44세) 변호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공범과 사건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이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면서 재판부는 세 그룹으로 나눠 증인신문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이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자 법원과 검찰은 협의해 세 그룹으로 나눠 증인신문을 벌이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신문 등을 위해 오는 17일 오후 3시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이서희 기자 staysf@jejupress.co.kr

제주도 제주의료원(원장 오경생)은 3일 오후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 고은실·김경학 의원을 비롯해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치매안심병동' 현판식을 진행했다.

도내 최초 24시간 치매안심병동 개소

환자가족 지원·심리부담 경감 기대

제주도내 최초 치매안심병동이 개소, 운영에 들어갔다.

제주도 제주의료원(원장 오경생)은 3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 고은실·김경학 의원을 비롯해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치매안심병동' 현판식을 진행했다.

제주도는 치매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를 넘어서 퇴원 후 일상생활 복귀와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제주의료원 부속요양병원에 18억6000만원(국비 50%·도비 50%)을 투입, 총 51병상의 치매안심병동을 증·개축했다.

제주의료원 부속요양병원 치매안심병동은 24시간 전담인력으로 구성,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이상행동 증상이 심한 중증환자 집중치료, 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 지원과 병원내 치매환자 가족 지원,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치매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한다.

오경생 제주의료원장은 "이번 치매안심병원 개소로 치매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가족들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됐다"며 "더 나아가 치매환자들의 최상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staysf@jejupress.co.kr

돌아간다며 택시기사 폭행한 30대 징역형

길을 돌아서 간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받도록 했다.

A씨는 지난 6월 제주시내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주행경로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운 데 이어 차에서 내려 택시기사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로부터 폭행 당한 피해자는 치아가 다치는 등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 운전사를 때려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서희 기자 staysf@jejupress.co.kr

60대 이춘희 씨 실종…가족들, 제보 호소

지난달 경찰 실종 신고 이후에도 행방이 묘연한 이춘희(66·서귀포시·사진)씨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 가족들이 제보를 호소하고 있다.

3일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춘희 씨는 지난달 27일 연락이 끊긴 뒤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미귀가 실종 신고가 가족으로부터 접수됐다.

이춘희 씨는 서귀포시 남원읍 망장포구 인근 폐쇄회로(CC)TV에서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된 이후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찰은 특공대 등을 망장포구와 쇠소깍 일대에 투입하는 등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색 도중 범죄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춘희 씨는 150㎝ 초반 정도의 키에 실종 당일 검정색 상의와 하의를 입고, 검정 모자에 안경을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춘희 씨의 소재를 알고 있거나 목격한 사람은 국번없이 182, 119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서희 기자 staysf@jejupress.co.kr

코로나 누적확진자 수 3129명

최근 발생한 집단감염 여파가 이어지면서 제주지역 코로나19 누적확진자 수가 3129명으로 늘었다.

제주도는 3일 오후 5시까지 8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8명 중 4명은 모두 집단감염 사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명은 '제주시 요양병원', 1명은 '제주시 실내체육시설(자유업)', 1명은 '제주시 실내체육시설(도장)' 관련 확진자다.

이에 '제주시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는 10명, '제주시 실내체육시설(자유업)' 관련 확진자는 8명, '제주시 실내체육시설(도장)' 관련 확진자는 33명으로 늘었다. 확진자가 발생한 제주시 요양병원 입소자·종사자 267명에 대한 전수검사는 진행 중에 있으며, 4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허영형 기자 hyh8033@jejupress.co.kr

길 건너던 50대 차에 치여 사망

늦은 밤 길을 건너던 50대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17분께 제주시 애월읍 광령3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50대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이 길을 건너던 B(58)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서희 기자 staysf@jejupress.co.kr

제주도정 소식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제주, 우리 모두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112, 상담은 129

11월 '탐나는전' 구매한도 100만원까지 확대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 참여 유도를 통한 소비촉진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하여 11월 한달간 탐나는전 구매한도 상향

□기　간 : 2021.11.1.~11.30.
□구매한도 : (월 한도) 700천원 → 1,000천원　(연 한도) 700만원 이내
□이용문의 : 콜센터 1600-3971

☞ 자주 묻는 질문
Q : 연 한도 600백만원을 다 쓴 사람도 추가 구매가 가능한지?
A : 연 한도를 다 쓴 사람도 추가로 11월 한달간 1,000천원까지 구매 가능

청년 취업지원 및 보금자리 사업 안내

①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신청 안내
□지원대상 :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
– (근로자) 도내 주소를 둔 15세~39세 청년 근로자
– (사업주) 상시근로자 1인 이상으로 4대보험 가입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 1인당 인건비 월 50~7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②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지원대상 : 무주택 청년 근로자에게 주거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 (근로자) 15세~39세 근로자로 월급여(주거지원비 제외) 322만원 미만인 자
– (사업주) 상시근로자 5인이상으로 4대보험 가입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 2년간 숙소임차료의 60% 또는 주택보조금의 80% (월 최대 30만원) 지원
③ 중장년근로자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지원대상 : 무주택 중장년근로자에게 숙소 임차료 또는 주택보조비를 지원하는 도내 중소기업
– (근로자) : 중장년근로자(40~65세 미만)로 월급여(주거지원비 제외) 최저임금 이상인 자
– (사업주)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지원내용 : 2년간 숙소임차료의 60% 또는 주택보조금의 80% (월 최대 3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매월 1일~10일
○ 신청방법 :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방문 신청 (중앙로 165)
○문의 : 제주120만덕콜센터(☎120), 일자리과 고용센터(☎064-710-4471)

4·3희생자 및 유족 복지 지원을 위한 유족증 발급 안내

□발급대상 : 4·3특별법 제2조에 의하여 결정된 희생자 및 유족
□혜택내용 : 제주항공 항공료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요금 감면 등
□신청기간 : 수시(연중)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도외 거주자의 경우, 희생자 본적지 관할 주민센터)
□문의 : 제주120만덕콜센터(☎120),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064-710-8457~9)

제주4·3사건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실종선고 청구 신청 접수 안내

□내용 : 4·3사건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실종선고 청구
□대상 : 4·3위원회에서 결정된 4·3사건 희생자
□기간 : 연중
□장소 : 도(4·3지원과), 행정시(자치행정과),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 제주120만덕콜센터(☎120),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064-710-8438,8455

2021년 단기취업특강 실시 안내

□대　상 : 도내 일반구직자 및 취업취약계층 등
□강의일정 : 매주 수요일(주 1회) 오전 10시 ~ 12시 (2021. 11. 17 ~ 2021. 12. 29.)
□장　소 : 제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 교육장
□신청방법 : [온라인(워크넷 www.work.go.kr) 및 현장 사전접수]
※ 당일접수 불가
※ 선착순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음(회당 70명)
□강의내용 : 구직기술 향상 및 교양강좌
□문의 : 일자리과 고용센터(☎064-710-4605, ☎064-710-4220)

제10기 도민감사관 공개 모집

□모집 개요
○모집 인원 : 25명 이내
＊세부적인 모집 분야 및 인원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　기 : 2022. 1. 1. ~ 2023. 12. 31. ※도민감사관은 무보수 명예직임
○지원 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 법률, 회계, 기술, 환경, 건설, 보건 등 전문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활동에 종사한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등록된 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신청방법 및 접수
○접수 기간 : 2021. 11. 9.(화) ~ 2021. 11. 15.(월)
○접수 방법 : ①전자메일, ② 방문, ③ 등기우편(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의 경우 제출한 경우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 확인 바람
○접수 장소 : 우63565 서귀포시 신중로 37(법환동), 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 (☎ 064-710-6192, E-mail: yj7kim@korea.kr)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신청 서식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홈페이지(https://audit.jeju.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을 다운받아 작성
□선정결과 : 2021. 12. 20.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및 위촉대상자는 개별 통지
□문　의 :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 (☎ 710-6192) 문의나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